

## 제51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조명 부문

# 백 광 민

MBC 제작기술부 조명감독

Interview



- <음악중심>,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가요대제전> 등 음악 콘텐츠 전문 조명감독으로서 K-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공헌
- MBC 일일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에서 UHD 영상 특성과 LED Light 제작 환경을 고려한 빛의 사용으로 영상을 예술적으로 표현



### 제51회 한국방송대상 조명상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투입되는 방송조명 분야인 만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고를 같이한 조명 스태프와 방송 동료 및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방송 입문 24년 차에 권위 있고 자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방송조명 분야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수상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여러 프로그램의 조명을 맡으셨는데, 맡으셨던 주요 프로그램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음악중심>과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MBC 가요대제전> 조명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일일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명 조감독 시절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사극 <선덕여왕>을 비롯한 드라마, <김동률의 포유>, <가요 큰잔치>, <개그야>, <음악캠프> 등 같은 공개 예능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일일 아침드라마 <주홍글씨>를 시작으로 조명감독에 데뷔하였으며, <전설의 마녀>, <여왕의 꽃>, <엄마>, <불어라 미풍아>, <밥상 차리는 남자> 등 많은 작품으로 스튜디오 드라마 제작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가요프로그램 <아이콘: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한도전 <‘토토가’ 콘서트>와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DMC 페스티벌 <나가수 레전드 스페셜>,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오! 나의 파트, 너>, 2013년, 2021년, 2022년, 2023년 <MBC 가요대제전> 등 음악 및 쇼 조명감독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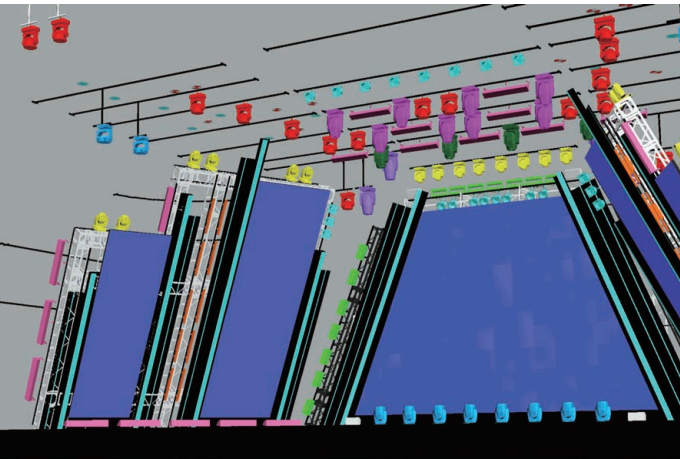


### 작년까지 ‘음악 콘텐츠 전문’ 조명감독에 매진하셨는데, <음악중심>과 같은 프로그램의 조명 연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주 바뀌는 세트 디자인과 노래의 컨셉, 아티스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노래의 감성을 고려하고 주요 배경이 되는 LED 영상과 스페셜하게 제작된 사전 세트에 조화되는 조명이 연출되도록 3D로 조명을 디자인합니다.

음악을 반복해 들으며 조명큐(각 조명 장비의 색상, 포커싱, 디밍, effect 등)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조명큐를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콘솔에 미리 메모리 작업을 하여 현장세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 본방송에 충분히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클로즈업되는 카메라 워킹이 많이 선회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명배치 및 팔로우로 아티스트의 표정과 무대 퍼포먼스가 풍성하고 깔끔하게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중심> 3D 조명 디자인 및 현장 포커싱



드라마세트와 4K 카메라



경량 LED 장비를 이용한 드라마 촬영

올해부터는 일일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에서 화려한 조명 연출과는 다른 정적인 환경과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짧게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UHD 제작 프로그램으로 반사판을 이용한 간접조명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경량화된 LED 장비를 이용하여 인물의 동선과 위치에 따라 스탠드 및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합니다. 조명 컬러필터의 필요 없이 LED의 컬러와 색온도 및 밝기를 빠르게 조절함으로써 밤과 낮 시제 분위기를 지체 없이 전환하여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풍부한 색감과 분위기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MBC에서 100% LED 조명으로 제작되는 예능과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드라마 스튜디오 제작은 기술적 검토로 할로겐 장비와 LED 장비가 혼용하고 있지만 추후 100% LED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조명 기법이 변화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감무쌍 용수정>은 드라마 세트에서 제작되다 보니, 인물과 세트의 원근감과 공간감 표현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작기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K 카메라의 focus Range가 기존 방송 카메라보다 좁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공간이 한정된 스튜디오에서 등장인물은 focus 되고 세트 배경은 defocus 됨으로써 인물의 표정과 대화에 더 시선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근감과 공간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조명의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부조정실의 조명 작업



조명디자인 작업 중

또한, 기존 HD급 카메라보다 넓어진 다이내믹 레인지와 탁월한 게인(Gain, dB)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명암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세트 곳곳 조명의 조도를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담당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과 그로 인한 감독님의 변화로는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는 신생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연습생들의 도전정신과 능력을 실시간으로 평가받는 방식이지요. 많은 스테이지의 무대가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초기 연습생 선발 과정부터 국내 최대 실내공간에서의 뮤직비디오 촬영, 단계별 서바이벌에 커버곡 및 창작곡의 퍼포

먼스가 매회 대결 무대와 준결승, 결승으로 이어지며 펼쳐졌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순위 발표과정에서 통과자와 탈락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담기게 됩니다. 조명도 매 무대에 맞춰 디자인이 변경되고 많은 곡의 특징된 퍼포먼스를 공정하게 부각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부터 1년이 걸린 제작과정이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음악프로그램 본 무대에 데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작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흐뭇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경험해보는 경연 프로그램 포맷으로 새롭게 개척하고 도전하며 인내했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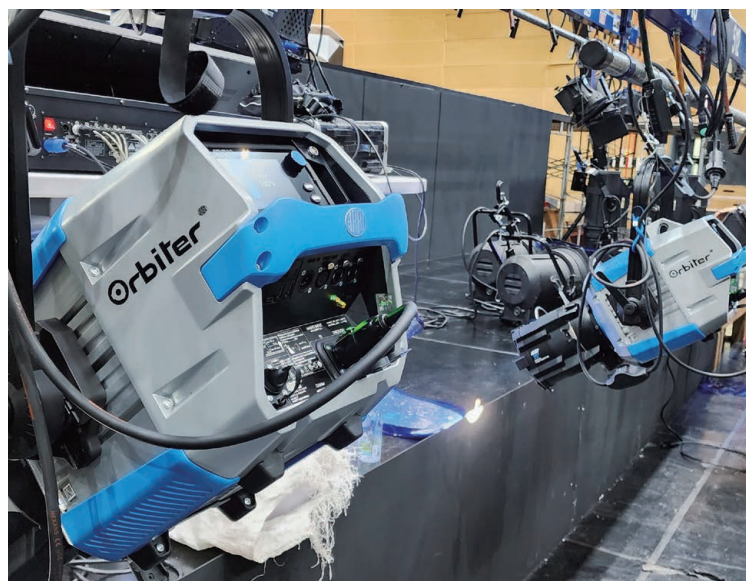
소년판타지 대기 스튜디오 조명 세팅



소년판타지 뮤직비디오 촬영현장과 조명 설치



소년판타지 오디션 세트



조명 설치 및 세팅

## 조명 업무를 하며 겪었던 일화,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여의도 사옥 시절 조명 조감독으로서 3일 연속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설치/방송/철수를 반복하다 보니 안면마비 증상인 구안와사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명 업무를 빨리 배우겠다고 무리하다가 건강까지 해치게 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일하면서도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며 후배들에게도 일 중독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더 챙길 것을 권유합니다.

## 방송제작에 있어 조명의 역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조명은 방송 현장의 시작이자 끝맺음입니다. 조명이 밝게 빛을 내는 순간 본격적으로 녹화나 생방송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명이 꺼지면 방송이 무사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지부가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계획이 있다면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 경제적 이슈 등으로 할로겐램프의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LED 조명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할로겐 중심의 스튜디오 방송 조명 체계가 LED 장비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스튜디오도 님머 중심 체계에서 조명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LED 장비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큰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안정화하는데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드라마 스튜디오 조명감독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모든 방송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특집 방송 및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기상 빠른 감은 있지만 무사히 한해가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수상자 단체 사진